Create Content
Connect Consumers
Make Values

2026 디자인하우스 소개서

designhouse 50th SINCE 1976

Story of designhouse

Create Content
Connect Consumers
Make Values

디자인하우스는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추구하는
콘텐츠 미디어 기업입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가치를 연결하고
고객의 성장을 돕고 매개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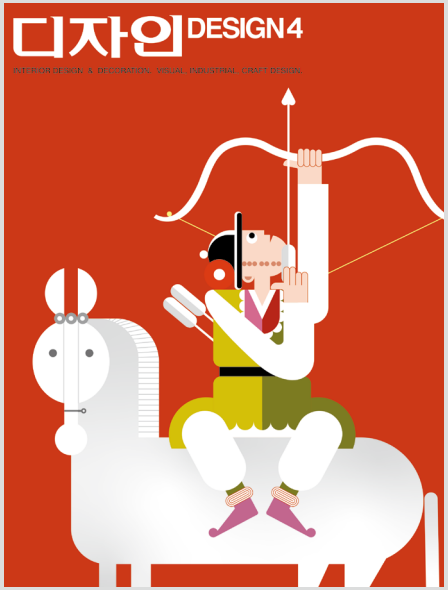


1998 제33회 잡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00** '이달의 중소기업인' 선정
2002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6**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상 수상
2008 자랑스런 홍익인상 수상 **2008** 이탈리아 문화훈장 수훈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014** 서울시립미술관 후원회 이사장
2015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2016** 경기도주식회사 이사회 의장
2018 한국여성디자인협회 평생공로상 수상 **2020** 디자인 명예의 전당 헌액

"미디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생각, 물건, 제도 등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알아채고 그 생각에 동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남 잘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미디어' 입니다. …
일반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잘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하우스의 미션입니다."

- 이영혜 대표. 인터브랜드코리아 인터뷰







"2020년 '대한민국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에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자
<디자인> <행복이 가득한 집> <럭셔리> 등을
발행하는 이영혜 대표가 최초 여성 헌액자로,
그래픽 디자이너 1세대인 故 김교만 교수와
함께 선정됐다.
40년 넘게 디자이너와 소비자, 기업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트 개발에 앞장서며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쓴 노고를
인정받은 것이다. …"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선정사

“남 잘되게 하는 디자인하우스”

- <의미부여의 기술>, 인터브랜드 코리아 2014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창조’하여
‘남을 성공시키는 회사가 되는 것’,
이것이 디자인하우스의 가치이자 경영 원칙입니다.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

디자인하우스는 좋은 콘텐츠로 기업과 브랜드,
소비자를 매개하여 성공을 돕고, 가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Media
Design
행복이깃든집
LUXURY
style H
DH Books
Fairs
SEOUL LIVING
DESIGN FAIR 2026
SEOUL
DESIGN
FESTIVAL
Digital Service
hey
POP
1집구석

Magazines

물질의 가치와 정신의 풍요를 전합니다

월간 디자인

창간년도 1976

발행부수 15,000

정기구독자 10,000

소셜미디어 영향력 **21만 이상**

facebook / instagram
naver blog



디자인의 또 다른 번역가 포토그래퍼

디자인과 사진은 불가분의 관계다.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 인식한 관점은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디자이너는 사진의 요소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사진가는 그 안팎을 넘나들며 독자적 시각언어를 구축한다. 월간 〈디자인〉 563호는 사진과 디자인의 유구한 관계를 되짚는다. 그래픽, 제품, 건축,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진가들의 세계를 조명하고 그 교차점을 살펴본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사진가가 번역한 이미지의 내밀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획** 월간 〈디자인〉 편집부

사진 홍기웅

Design

영화보다 오래 기억될 영화제 아이덴티티 디자인

영화제의 얼굴은 배우도, 작품도 아니다. 거리에 나붙은 포스터와 현수막은 때로 영화보다 흥미로운 비주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곤 한다. 도시마다 영화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행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보다 오래 기억될 영화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모아 소개한다. 글 최지원 기자



시네프라이드영화제
Cinépride Film Festival

프랑스 문화부는 LGBT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퀴어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프랑스 낭트에서 열리는 시네프라이드영화제도 그 일환이다. 도시 내에 자리한 LGBTQI+ 센터가 설립한 이 영화제는 젠더와 성 정체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장·단편 영화를 주로 소개하는데, 영화인뿐 아니라 LGBT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단체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시네프라이드영화제는 매해 다채로운 컬러와 조밀한 그래픽 요소를 통해 유쾌하고 발랄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굳이 영화를 모티프로 한 시각 요소를 고집하지는 않는 편인데, 2024년에는 촛불을 켠 케이크를 전면에 내세운 아이덴티티를 선보이며 영화제 20주년을 자축하기도 했다.

클라이언트 시네프라이드영화제
디자인 아뜰리에 초크 르 고프 (대표 Donald Choque, Yoann Le Goff), choquelegoff.com

브루클린영화제
Brooklyn Film Festival

브루클린영화제는 뉴욕을 기반으로 한 독립 영화제다. 지역 문화에 뿌리를 두면서도 국제적인 영화 담론에 긴밀히 호응한다.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제를 맡은 아더웨이Otherway는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관람 경험을 시각 언어로 풀어냈다. 캠페인의 핵심 시각 요소는 심장, 뇌, 눈을 형상화한 3D 오브제 이미지로, 큰 스크린을 통해 가능한 몰입도 높은 관람 경험을 은유한다. 반면 무빙 이미지에는 스마트폰의 스크롤 동작을 적용했다. 스크린과 스마트폰의 상반된 관람 방식을 통해 '동시대의 스크린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했다.

클라이언트 브루클린영화제
디자인 아더웨이, otherway.com
협업 Klong



1 아이덴티티의 축을 잡아주는 견고한 타이포그래피는 두 버전으로 제작했다. 하나는 기본형이고, 다른 하나는 글자 주위에 흐릿한 광채를 더한 시네마 버전이다.
2, 3 심장, 뇌, 눈을 형상화한 3D 오브제 이미지. 뇌를 자극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영화 관람 경험을 시각화한 것이다.





Design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디자이너의 직업 수명이 짧은 나라다. 이유는 다양하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작은 내수 시장, 기형적인 산업 구조…. 하지만 여러 난관 속에서도 오랜 기간 묵묵히 자기만의 길을 닦는 창작자도 있다. 그리고 때로 그 길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재일 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한국 이름 유동룡)의 유지를 체화한 건축가 유이화는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고 있다.

글 최명환 편집장 **인물 사진** 맹민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 유이화 대표

In the Name of the Father
Yoo Ehwa

It may sound harsh, but designers have a particularly short career in South Korea for many reasons: fast-changing trends, a small domestic market and a malformed industrial structure, to name but a few. However, we still have a few creatives who have been quietly forging their own paths for a long time despite these difficulties. Sometimes these paths are even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Architect Yoo Ehwa embodies the spirit of Korean-Japanese architect Itami Jun (Korean name: Yoo Dongryong) and brings it to the next generation.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 대표 겸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 이사장. 이타미준건축연구소 서울지사를 설립한 2002년부터 이타미 준이 타계한 2011년까지 건축과 인테리어 작업을 함께 진행했다. 대표작으로 제주 유동룡미술관(이타미 준 뮤지엄), 칠곡 시호재, 한동대학교 하늘소리, 아주 좋은 꿈터, 핀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SK 기흥 아펠바움, 쌍용 오보에힐스, 서원힐스 CC 클럽하우스, 제일전기 사옥, 이노이즈 사옥 등이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상(2023, 2024), iF 디자인 어워드(2016, 2018, 2023, 2025), 독일 디자인 어워드(2019, 2025), JCD 어워드(2004) 등에서 수상했다. 현재 원주시 총괄건축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itmarch.com



ITM유이화건축사사무소에서. 유이화 소장 뒤로 건축가이자 예술가였던 아버지 이타미 준의 그림이 보인다.

행복이 가득한 집

창간년도 1987

발행부수 50,000

정기구독자 15,000

소셜미디어 영향력 40만

facebook / instagram
naver blog
youtub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누군가의 어떤 서랍

서랍을 여는 일은 작은 결심을 동반한다. 한 해의 시작도 이와 닮아 있다.
넘어가는 달력 앞에서 우리는 괜히 자세를 고치거나 마음을 다잡는다.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닫힌 서랍을 열어 과거와 현재가 포개지는 틈을 만나보자.

기획 문지윤(뷰로 드 꼴로디아 대표) **사진** 안지섭 **정리** 김승훈 기자



요리 연구가 이윤서의 서랍

풀과 열매로 하루를 채운다. 차를 마시고 향을 사르며
깨진 그릇을 수선한다. 어찌 보면 무용해 보이는
아름다움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힘을 길어 올려
내 안의 불안과 결핍을 다독인다.

본다는 건 일종의 반응에 가깝다.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에 따른 반응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의식하지 않아도 두 눈으로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연다는 건 보는 일보다 좀 더 복잡한 행위다. 우선 눈앞에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것이 여닫을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걸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다음으로 닫혀 있어 볼 수 없는 너머에 무엇이 있을 거란 상상력이 필요하다. 종국에는 몸을 움직여 그 사물을 열겠다는 의지 또한 발휘해야 한다. 그러니 연다는 건 보는 것보다 능동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차 연구가 김은경과 목공예가 김민욱의 서랍

나무를 깎고 남은 톱밥과 나뭇조각, 바다에서 주운 돌,
조개껍데기, 말린 미역.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파편들. 어떤 이에게는 쓰레기투성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각이야말로 우리 둘의 모습을 아주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닐까.



테이블웨어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를 넘어 먹고 마시는 순간의 미학을 완성하는 오브제다. 크리스털부터 포슬린까지,
매 순간 테이블 위를 새로운 표정으로 변모시키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

글 정경화, 백세리 기자 **자료 제공** 각 브랜드

빛나는 크리스털의 세계, 생루이Saint-Louis

우주의 광채를 담아낸 생루이의 '토미TOMMY'는 별 모양 베이스 위에 다이아몬드·비스·필릿·진주 커팅을 겹겹이 얹은 크리스털 컬렉션이다. 정교한 커팅이 각도에 따라 빛을 다르게 투과하며, 섬세한 결을 또렷하게 드러낸다. 베르사유궁전 '거울의 방'의 화려함 속에서도 독보적이면서, 일상의 테이블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발휘한다. 문의 생 루이 도산 부티크(070-8866-7770)



갤러리오 현대장신구 오미화 대표

‘굵은’ 삶을 향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

라이프스타일은 확실히 밸셈의 결과다. 굳이 필요치 않은 것,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무심히 제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이 굵은 나만의 삶이 만들어진다. 갤러리오 현대장신구 오미화 대표의 삶과 가치관, 집과 갤러리를 관통하는 것은 ‘굵은 예술’을 향한 동경과 애정이다. 생을 바쳐 단단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 재료의 본성이 묵직하게 묻어나는 작품, 곁눈질하지 않고 무던히 나아가는 삶에 가치와 의미를 둔다.

글 정성갑(갤러리 클립 대표 & <건축가가 지은 집> 저자) 사진 박찬우

기둥과 벽면, 그리고 계단이 하나의 큰 조형성 아래 조화를 이룬 오미화 대표의 집. 그녀가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로프트 하우스를 좌표로 삼았다.



파베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를
발집무늬 패턴으로 섬세하게 핸드 세팅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
'티파니 하드웨어 이어링'은
티파니앤코 제품.

The Art of Making

공예의 바탕을 이루는 소재와 섬세한 손길로 빚은 일상의
도구 위에 하이 주얼리가 자리했다. 진행 오지은 사진 황병문



싱그러운 초록빛 말라카이트와
오묘한 진줏빛 머더오브펄이 세팅된
'주드 리앙 하모니 네크리스'는 쇼메 제품.

럭셔리
럭셔리M

창간년도	LUXURY 2001 LUXURY M 2016
발행부수	LUXURY 8만2천 LUXURY M 30만
브랜드 네트워크	600
소셜미디어 영향력	50만



럭셔리, 정신의 풍요와 물질의 가치


풍성한 러플 장식의 맥시 롱 드레스,
프린지 디테일의 스웨이드 재킷 모두 **ETRO.**
벨기에 아티스트 캐스퍼 보스만스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브리앙 블랙 에디션 레전드' 백 **DELVAUX.**
보 장식 미니드레스 **VALENTINO.**
니티드 스웨어 캡 **LOUIS VUITTON.**
세련된 배색 포인트가 특징인 롱스킨 펌프스 **CHANEL.**

LUXURY

WATCH & JEWELRY

SYNCHRONIZED HEARTS

손목 위에서 따로 또 같이 흐르는 시간, 멀리 있어도 한결같이 빛나는 손 위의 보석은
다른 공간에 있어도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자 하나의 리듬이다.

EDITOR
NAM JEONGHWA

PHOTOGRAPHER
YOUNG BAE



WOMAN
매트 블루 세라믹과 스틸,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를 탑재한
지름 33mm 사이즈 'J12' 워치,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CHANEL WATCH & FINE JEWELRY. 플라워 자수 장식의
드레스, 리본 헤어장식 모두
BRIDAL KONG.

MAN
매트 블루 세라믹과 스틸 소재의
지름 38mm 사이즈 'J12' 워치,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미니 링 모두
CHANEL WATCH & FINE JEWELRY. 재킷과 셔츠,
베스트, 화이트 실크 넥타이 모두
BLACK KONG.

SMALL, BUT POWERFUL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감. 일상 속 오브제에서 포착한 스몰 페이스 워치.

까나쥬 패턴을 가미한 미더오브뷰 다이얼과 스테인리스스틸 밀라노 브레이슬릿으로 하우스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케이스 선체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솜씨히 세팅한 지름 19mm의 '라 디 다이 디올' 워치 **DIOR TIMEPIECE.** 지름 25mm 케이스에 운석을 연상시키는 다이얼과 스테인리스스틸, 18K 세드나™ 골드를 조합한 '모노 랭 브레이슬릿이 특징인 '컨스틸레이션' 워치 **OMEGA.**



19.7×15.2mm 사이즈의 18K 옐로 골드 케이스 위에 레드 래커 선레이 다이얼과 '밸벳 징식의 레드 러버 스트랩을 매치한 '프리미어르 리본 레드' 워치 **CHANEL WATCHES.**
24×16.5mm 옐로 골드 케이스에 블루 핸즈와 사파이어를 세팅한 비즈 크라운이 특징인 '탱크 루이 까르띠에' 워치 **CARTIER.**



EDITOR
OH KYUNGHO

PHOTOGRAPHER
CHOI SEUNGHYUK

LUXURY ICONS 6

새로운 시즌, 헤리티지 위에 동시대적 미감을 담은 아이코닉 아이템을 만나다.

EDITOR SOHN SORA **PHOTOGRAPHER** LEE HOHYUN



실버 톤의 피스톤 잠금장치와 빈티지한 무드가 돋보이는 블랙 소프트 레더 '재키 1961' 리지 백 **GUCCI.**

18K 옐로 골드와 아코야 진주가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는 '엘런스 시그니처' 링 **TASAKI.**



ASSISTANT 김희수 **COOPORATION** 구찌(1577-1921), 다미아니(6204-1924), 모저앤씨(6905-3363), 브레게(6905-3571), 블랑팡(3479-1833), 타사키(3461-5558)

스타일 H

창간년도 2005

발행부수 60,000

브랜드 네트워크

100대 명품 브랜드

소셜미디어 영향력

더현대 카카오플러스 친구 15 만
더현대 인스타그램 28만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 매거진



라이트 블루 컬러의 홀터넥
드레스 랄프 로렌 컬렉션(무).

Sail Away

바다와 하늘을 닮은 블루, 순백의 화이트, 그 사이를 오가는 스트라이프가 여름 위로 고요히 닻을 올린다.
정제된 세일러 무드와 도시적 감성을 담은 서머 룩의 낭만적인 항해가 시작된다.

Luminous Hues

**깊고도 맑은 톤, 번짐과 겹침이 만든 미묘한 뉘앙스,
강렬하게 퍼지는 색의 파장이 한 공간에서 조우했다. 여섯 작가가 작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과 예술을 닮은 패션이 서로의 색으로 물드는 순간.**



20세기 추상 화가 요제프 알베르스의 작품을 재해석해
현대적으로 완성한 클러치 **로에베**(더현대 서울·본·무·판).

캔버스 위에 한지와 모래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몽환적인 컬러를 완성한 회화 작품 'Lastly, an End', Hanji,
sand and acrylic on canvas, 120 × 60cm, 2021, 보킴 作.



플래드 패턴의 원 숄더 드레스 **루이 비통**
(더현대 서울·본·무·판·더현대 대구·울).
부츠 **질 샌더**(더현대 서울·무·더현대 대구).

전통 옻칠 기법을 현대적 색채와
형태로 재해석한 작품 'Merge Series_
Wishing Pagoda', 35 × 43cm, 39 × 43cm,
39 × 43cm, 2024, 김옥 作.

"소망 성취와 길상을 기원하는 막돌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사계절의 색과 시간을 쌓으며
꿈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그린다."
옻칠공예가 김옥

Unveil the Base

정교한 설계로 트렌드를 이끌고, 멀티 포뮬러로 커버를 넘어 스킨케어까지
책임지는 요즘 메이크업 베이스의 면면.



필터를 거친 포뮬러가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하는 '땡 이돌 울트라 웨어 메쉬쿠션'은 13g, 9만8천 원 **랑콤**(본·무·천·신·미·목·중·킨·판·더현대 대구·울·충). 얼굴 윤곽과 구조를 파악해 메이크업을 돕는 '베니쉬 파운데이션 스틱'은 7.2g, 7만 원 **아워글래스**(판). 메시망을 통과해 가볍게 발리는 '뚜쉬 에끌라 글로우-팩트 쿠션'은 12g, 11만2천 원대 **입생로랑 뷰티**(무·신·판).





Technology with Base Makeup

메시 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최근 쿠션 파운데이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러 스킨mirror skin, 노 메이크업 스킨no makeup skin 등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지향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이 기술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 메시 테크놀로지는 파운데이션 포뮬러가 마이크로 단위의 미세한 홀을 통과해 쿠션 표면에 얇고 균일하게 묻어나도록 설계돼, 한층 더 섬세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흐름은 고체 제형 특유의 빽빽함을 없앤 스틱 파운데이션으로도 확장됐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세라는 "스틱 파운데이션으로도 충분히 '꾸안꾸'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부위를 커버할 필요 없이 컨실러처럼 사용해보세요. 텁텁하게 발리지 않아 깨끗하고 정갈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위 땀과 물에 강한 파운데이션으로 지속력과 커버력을 모두 갖춘 '포에버 스킨 퍼펙트 스틱'은 10g, 9만2천 원 **디올 뷰티**(전점, 커넥트현대 청주 제외). 아래 초밀착 포뮬러로 피부에 고르게 스며드는 '리빌 메쉬 쿠션 블루 에디션'은 12g, 10만8천 원 **프라다 뷰티**(더현대 서울).

Serene Brilliance

**단정하고 고요한 빛의 세계에서
마주한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의
우아한 품격.**

검지에 착용한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미니 링과 약지에 착용한 18K 베이지 골드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링, 소지에 착용한 리본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루반' 링, 벨벳 러버 스트랩의 '프리미에르 리본' 워치, 18K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모두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까멜리아' 링과 이어링, 깃털 모티브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화이트 골드 '플륌 드 샤넬' 네크리스,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더한 18K 화이트 골드 '코코 크러쉬' 네크리스 모두 **샤넬 파인 주얼리**.

DIGITA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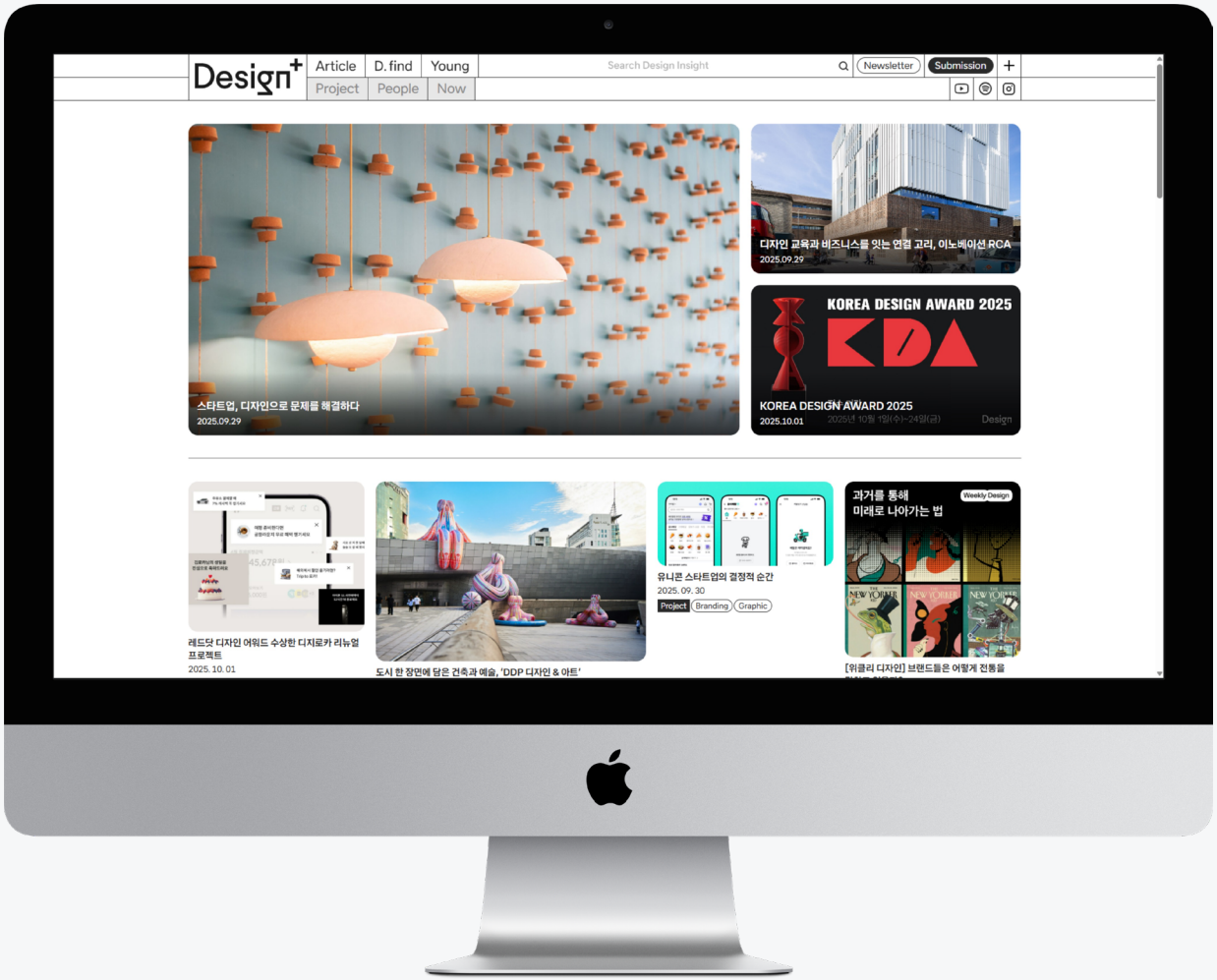
미디어의 확장, 플랫폼 & 소셜미디어

디자인플러스

2024년 12월 사이트 개편

월간 방문자 14만 이상
월간 페이지뷰 32만 이상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모색하는 혁신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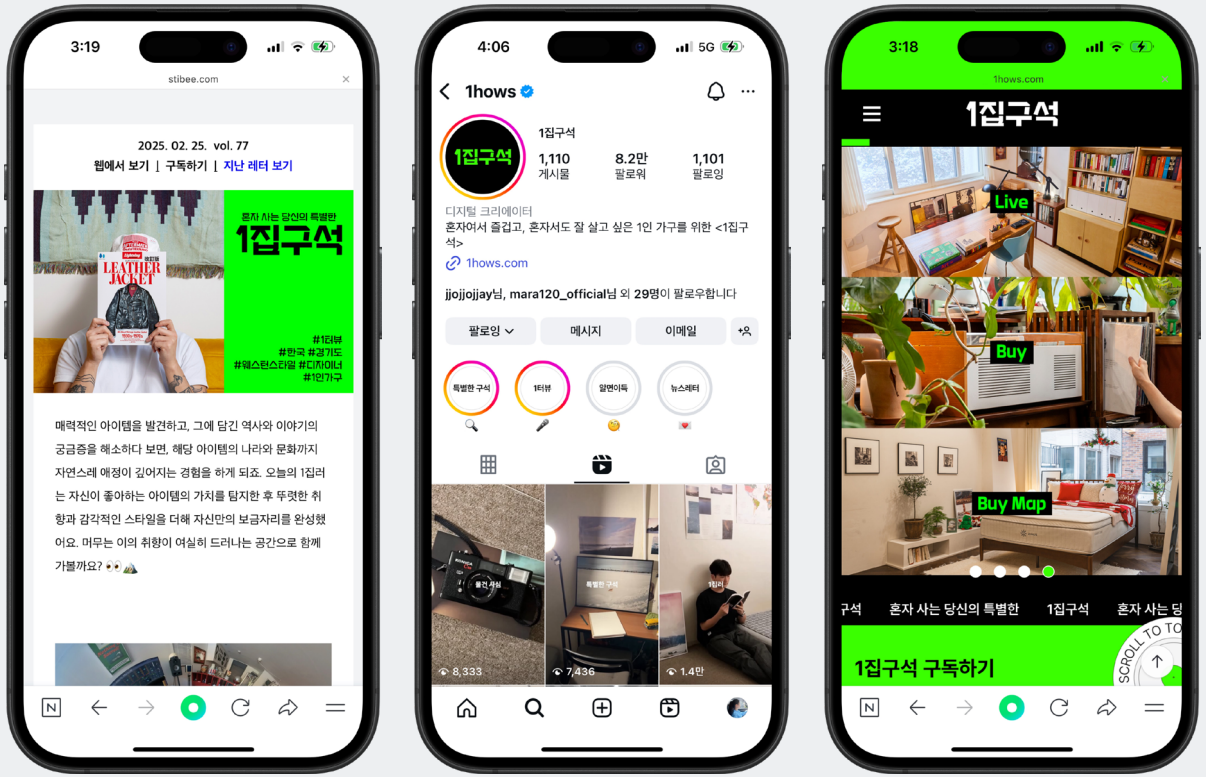


1집구석

2024년 2월 오픈

뉴스레터 구독자 12만
월간 방문자 10만 이상
월간 페이지뷰 16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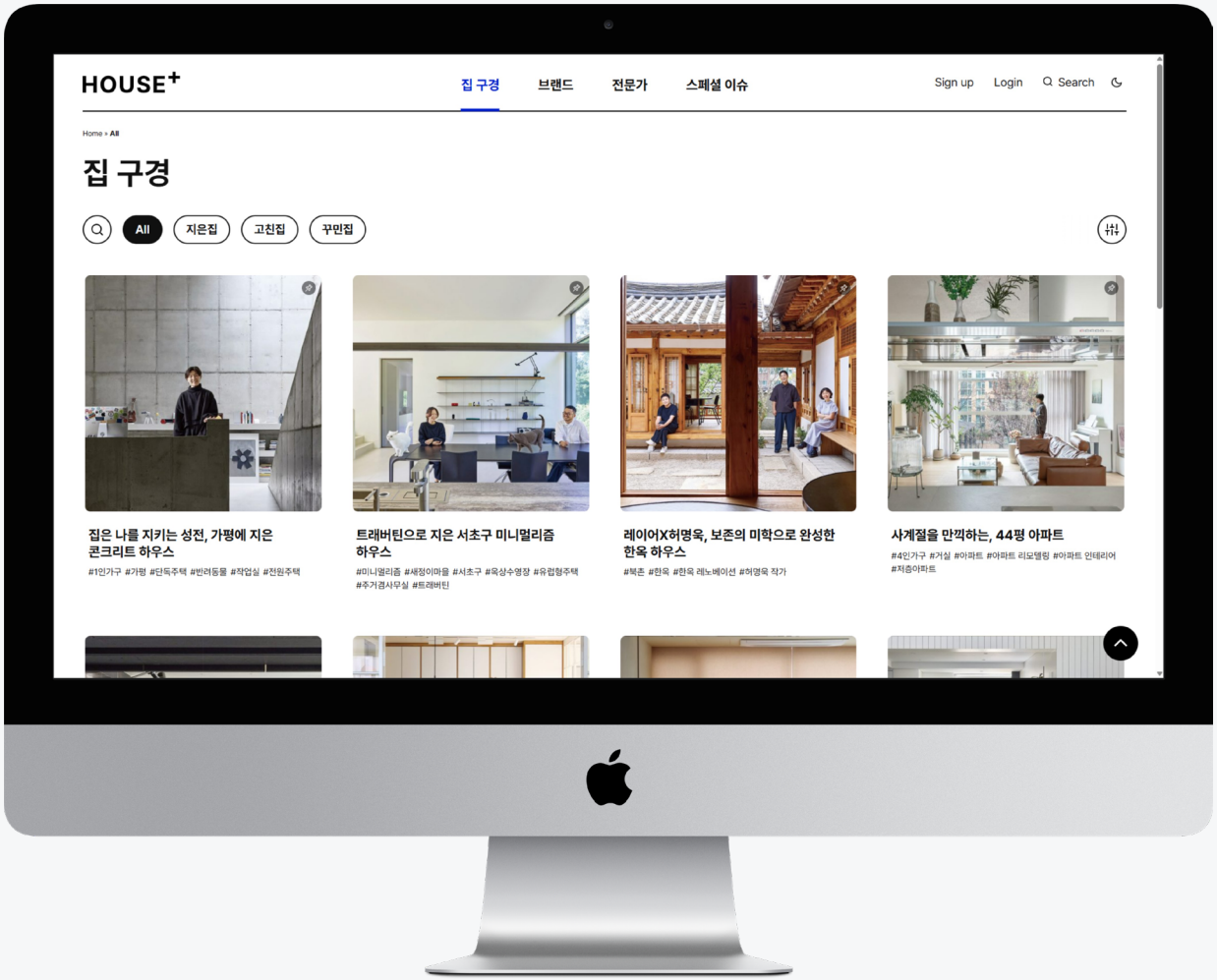
특별한 공간, 사람, 아이템을
소개하고 나누는
1인 가구 취향 또래 미디어



하우스플러스

2026년 하반기 정식 오픈

‘집’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물을 소개하는
리얼 주거 레퍼런스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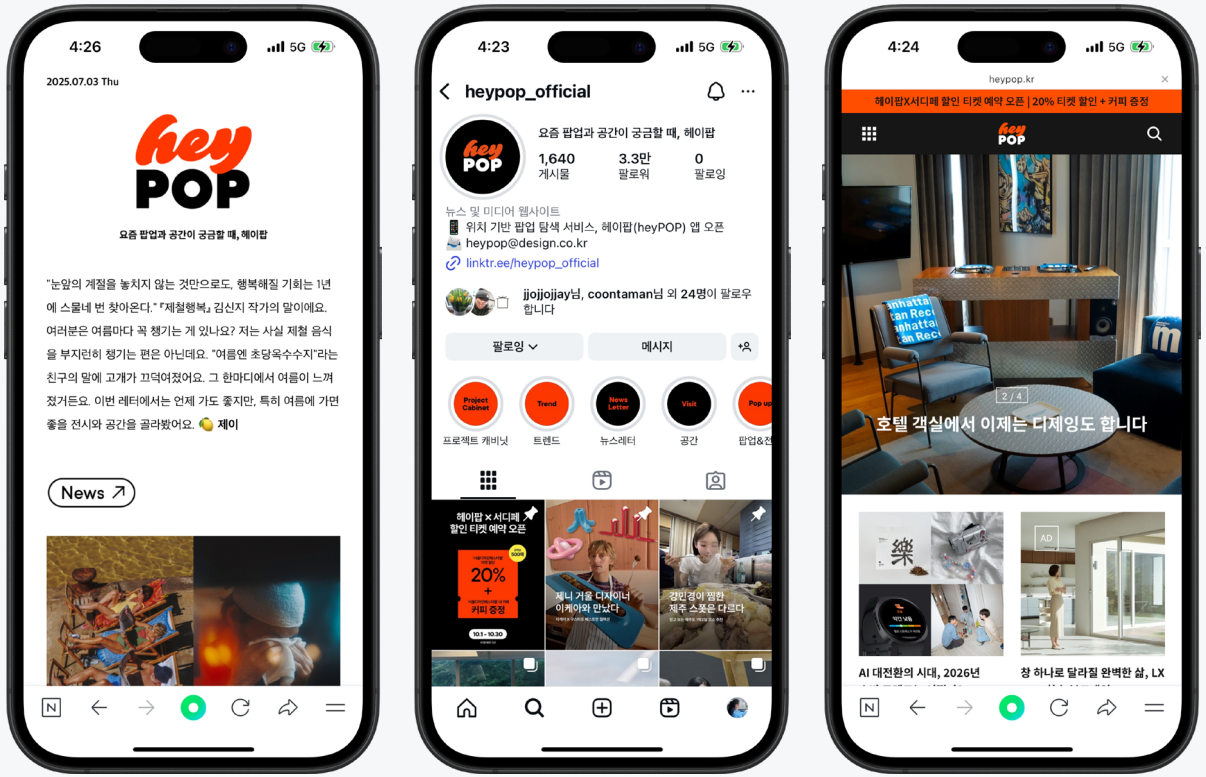


heypop

2021년 12월 오픈

뉴스레터 구독자 3만

매일 새로운 오프닝 스토리
팝업 큐레이션 서비스
<헤이팝>



유튜브 행가집

2024년 8월 ~

구독자 10.9 만 명
누적 조회수 1,938만 회

사람을 통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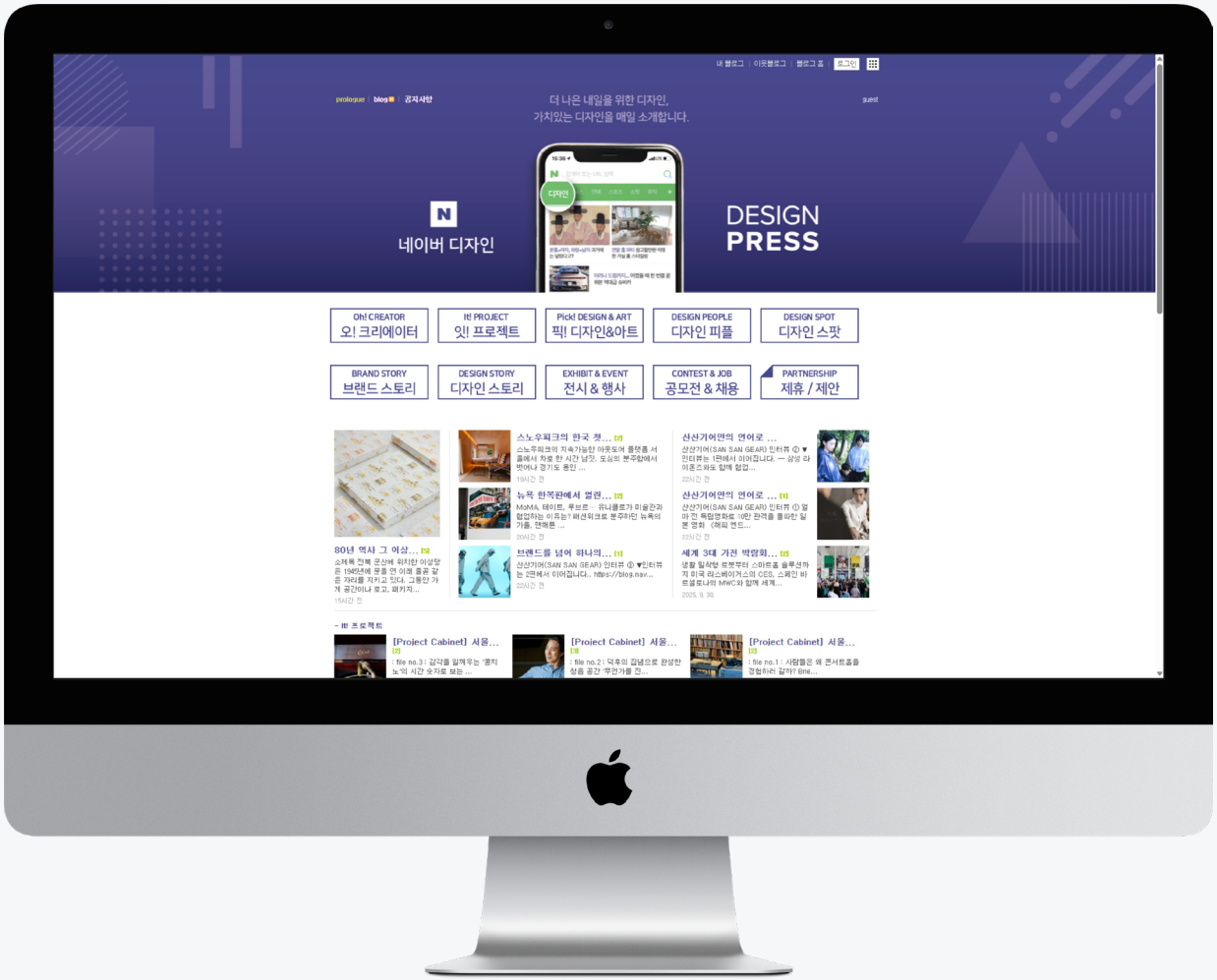


네이버
‘디자인’

2016년 10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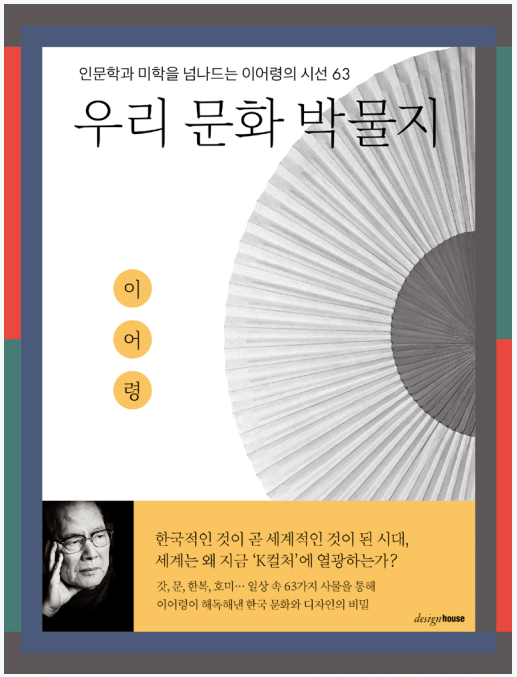
디자인프레스 네이버 계정
(구, 네이버디자인)

네이버블로그 15만
네이버포스트 3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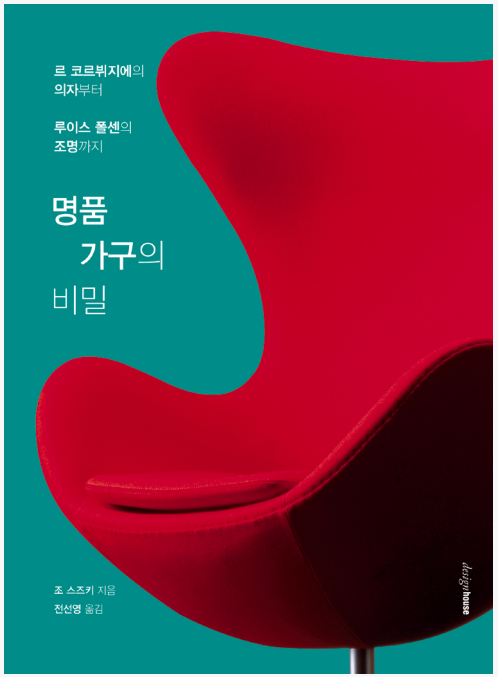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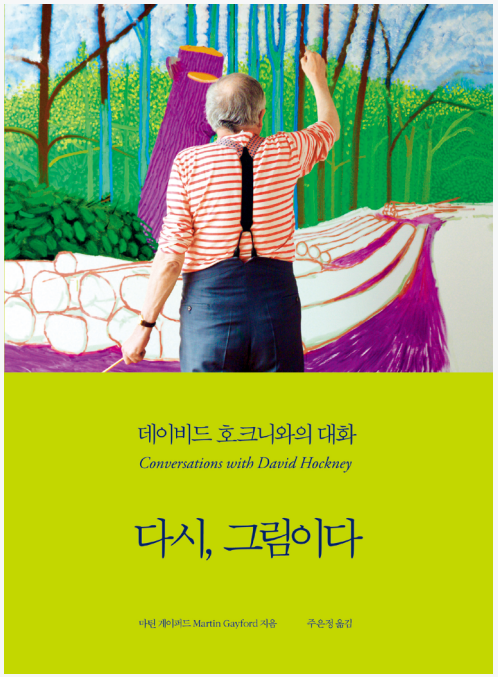
DH Books

문화와 예술, 디자인 콘텐츠로 삶을 채웁니다


인문학과 미학을 넘나드는 이어령의 시선 63
우리 문화 박물지
이
어
령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 된 시대,
세계는 왜 지금 'K컬처'에 열광하는가?
갓, 문, 한복, 호미… 일상 속 63가지 사물을 통해
이어령이 해독해낸 한국 문화와 디자인의 비밀
designhouse


디자이너
한호림의
진짜
싸울 수
있는
거북선
designhouse
龜甲船


르 코르뷔지에의
의자부터
루이스 폴센의
조명까지
명품
가구의
비밀
조 스즈키 지음
진선영 옮김
designhouse


데이비드 호크니와의 대화
Conversations with David Hockney
다시, 그림이다
마틴 게이퍼드 Martin Gayford 지음
주은정 옮김

Fairs

매거진 콘텐츠,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리빙 디자인 페어 SLDF

최초 개최 년도	1994 서울
참여 브랜드	3,000
참여 디자이너	3,500
누적 관람객	500만






자연이 가득한 집
ORGANIC STYLE
TEAZEN
MISOKA
KOKA CHARM
INTERIORSKOREA
디자인하우스 책방
D-903

서울디자인 페스티벌 SDF

최초 개최 년도	2002
참여 브랜드	2,400
참여 디자이너	5,300
누적 관람객	200만




#MCMSTYLE
#MCMXZEP
MCM


YOUNG DESIGNER PROMOTION
소화전
움직인
1표로 최종
앰버서더가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안전 관람
에티켓
B-101
이화진
B-104
B-105
A-101
A-103
A-104
2021 SDF
YOUNG DI
역대
영디자이너
20인 기획전
A115
A114
B125
B124
B126
B123
Hyungu Hwang, Minjeong Kang
Ahhyun Koo
Youngwoo Kwon
Seunghyeok Kim, Dorim Song,
Daeyun Kim
Yeunsuk Kim
Hyunjeong Kim
Jihyun Nam
Seungwon Moon, Jaeyoung Myung
Daesung Park
Minjeong Park
Jeongon Park
Hyongho Park
Seoyoung Bae


DESIGN
SEMINAR


디자인세미나
DESIGN SEMINAR
Devo ammettere
che è difficile
spiegare
a mia madre
perché disegno
un tavolo
con 171 gambe.
Il design spiegato a mia madre, Rizzoli, 2010
디자인세미나
DESIGN SEMINAR

전시 대행

지스타

세계4대 게임 전시

발주처 **한국 게임 산업 협회**

대행년도 **2020, 2021**

참여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 **700**

관람객 **25만**




kakaogames
2B
kakaogames
이터널 리턴
LIVE STAGE

전시 대행

공예 트렌트페어

발주처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관광부)**

대행년도 **2020**

참여 브랜드 **670**

관람객 **8만**







Space & Event

브랜드와 고객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LOCATION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PROJECT
기획, 건축, 콘텐츠 구축, 운영

OPERATION
㈜디자인하우스

OPERATION PERIOD
2006




DONGNAMA


www.papertainer.co.kr
Anycall


PAPER TAINER
maven of design





행복 작당

LOCATION
서울 종로구 북촌, 서촌

PROJECT
행사 기획, 운영, 홍보

CLIENT
㈜디자인하우스
행복이가득한집

OPERATION PERIOD
2016 ~ 현재













Craft & Design Gallery

전시와 홍보 이벤트를 위한 공간

디자인 전문 갤러리 모이소

LOCATION
서울 중구 동호로 272

PROJECT
행사 기획, 운영, 홍보

OPERATION PERIOD
2020 ~







크래프트 & 아트 갤러리 지우헌

LOCATION

서울 종로구 북촌로11라길 13

PROJECT

전시, 클래스, 대관

OPERATION PERIOD

2022 ~






디자인

사옥
외벽 광고

LOCATION
서울 중구 동호로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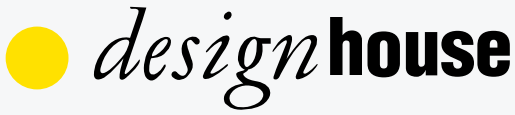
PROJECT
광고, 홍보

OPERATION PERIOD
2020 ~




designhouse


앰배서더



www.designhouse.co.kr